

제14회 ICPHSO 총회 및 심포지엄



생활용품안전팀 공업연구관
임 헌 진

02-509-7247 / hjlim@mocie.go.kr

I. 일반 현황

㉠ 출장목적

- 「제14회 ICPHSO 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미국, EU 등 주요국의 제품안전정책 제도 파악
- × ICPHSO :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& Safety Organization
- 제품안전정부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협력 채널 구축 협의
-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(CPSC), EU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이사회 등

㉡ 출장지 및 출장기간

- 출장지: 미국 올랜도
- 출장기간: 07. 2. 25 ~ 3. 3 (7일간)

㉢ 출장자: 안전관리팀장 최월영 3명

II. 주요 회의내용

1. ICPHSO International Day (2.26)

㉠ ICPHSO 주요활동

- 94년 ICPHSO 회의결성, '04년부터 유럽 심포지움 개최
- ※ '04년 영국 런던, '05년 네덜란드 아넴, '06년 벨기에 브리셀
- 06년 베데스다 선언문 발표
- ※ 베데스다 선언: 2006년 5월 미국 베데스다에서 제품안전 관련 각국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적으로 조화되는 안전규정(harmonized safety regulations) 마련을 위해 공표한 선언문
- 07년 아시아 지역 첫 회의 개최 예정: 중국 북경 ('07.5.)

- 향후 계획
- ! 08. 2 제5회 총회(미국워싱턴)
- ! 08.11 제4회유럽회의: PROSAFE EMARS 연계 개최

□ World Cracker Barrel

각 지역(미주, 유럽, 아시아)별로나눠재국의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소개하찰석자와질의응답

- 미주지역: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의 안전 관리제도 소개
- 유럽지역: 일반제품안전지침(예)한 위험제품 보고제도 소개
- 아시아지역 한국, 일본, 인도에 쌀표(약 100 명참석)
- 한국: 공산품안전관리제도주요개편내용(임헌 진연구관)
- 일본: 소비자제품안전법(예)한 위험제품보고 체계(NITE 부장대행)
- 인도: 가짜및 미인증제품으로인한 안전사고의 심각성(소비자단체)

□ ICPCSC 활동소개

ICPCSC : 각국정부기관소비자제품안전담당(예)의

- + ICPCSC :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Caucus
- EU의 시장감시제도, 위해정편자보고시스템
 - ※ EU는 PROSAFE를 구성하여 시장감시 개선 프로그램(EMARS : Enhanced Market Surveillance)을 개발하고 있음
 - ※ PROSAFE : Product Safety Forum of Europe (유럽 제품안전포럼)
- 미국CPSC 국제협력프로그램, 캐나다(예)품안전법령최근개정사항

※ CPSC :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(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)

- 소비자제품의위해성평가방법소개(Intertek)

2. 제14회 ICPHSO 총회 및 교육 심포지엄 (2.27 ~ 3.1)

□ CPSC 워크숍

- 사업자의위해제품보고 의무제도(reporting obligation)
 - 사업자가위해제품을인지한경우 24시간이내에 CPSC에 위해제품정보에 대해 보고를의무화한 제도
 - ※ 사업자 : 제조자(수입자 포함), 판매자
 - 시정조치(corrective action) : CPSC에 사PD를 거쳐 제품의 결함및(예)콜판정및조치
 - ※ PD(preliminary determination) : 제품의 결함 및 위해성 여부를 평가
- 최근소비자제품안전법(예)한시정조치안전규정 개정동향
 - 위해제품보고의무 제도확대: 판매자의범위에 소매업자포함
 - 위해판정제품에대한세부시정조치철폐및(예)행기한강화
- 최근안전기준개정동향
 - 개정: 매트리스(07.6 시행), 휴대(예)전기(07.5 시행)
 - 개정 검토: 유아용목욕시트, 어린(예)세사리, ATNs 등
- 제품관련상해에대한소비자행동과의연관성 조사사례
 - 어린이(2~10세)가자전거, 인라인스케이(예)등 바퀴달린놀이기구를탈 때의속도와상해에대한 조사사례발표(Fisher Price)

- 비비탄총에탄환의운동에너지에따른안구손상 정도 (Virginia Tech)

※ 1.2 J 이상의 속도에서 안구 파열

○ ISO-COPOLCO 제품안전작업반최근활동

- NWIP : 사업자의제품안전지침, 제품안전권역에 이른적배경포함

※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작업반에서 리콜 표준화 착수

□ 제품안전워크숍

○ 소비자제품안전별(미·나·유럽) 안전관리제도비교

	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	유럽일반제품안전지침
적용범위	자동차등타법으로규제되는 제품은제외	자동차등소비가사용하는 제품은모두포함
안전제품에 대한	정의없음	있음 (안전제품만판매토록의무화)
보고의무	Section 15에의해보고	안전제품이아님을인지한경우
판매자 보고의무	제조(수입)자와동등	제조자(수입자) 우선보고
시정조치	PD를통해서 중지시켜두관중	제품결함발생시

○ 글로벌제품리콜

- 소비자제품의유통이글로벌화되면서위해제품에 대한리콜이한 국가에만한정되지않고유통되는모든국가로확대되는추세

- 리콜제도에대한국제공통규정 마련 추진
· 각국마다안전규정에따라위해성평가결과가 다를수 있고, 전세계적으로리콜 제도가동일하지않은상황

※ ISO-COPOLCO에서 국제표준화 추진

○ 임의표준(voluntary standards)의적용확대

- 제품의위해정도등을 고려하여강제안전기준과 임의표준을구분적용

- 미국은소비자제품에대한임의표준개발에정부당국의참여및 자발리콜에적용을확대하는추세

○ 소매업자에 대한위해제출고의무확대

- 미국은제조(수입)자및 도매업자에대한위해제품 보고 의무를소매업자까지확대하는것으로 규정을개정하여금년부터시행

※ 현재 Wal-mart, sears/Kmart에서 자발 참여

○ 제품안전에대한사업자교육 및의견수렴

- 소비자제품의리스크경영

- 경고및 주의표사 문화적차이를줄이기위한호의적인안전커뮤니케이션방안

- 기업의리콜을최소화하기위한프로세스및 절차토의

□ 새로대두되는이슈

○ 소비자제품에나노기술적용의위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

- 나노기술은소재, 에너지, 의약, 먹물 분야등에서혁신을주도하는첨단기술

- 그러나, polystyrene beads가피부를침투할수있는등위해성논의증가추세

- 나노기술에대한인체 위해성평가및 안전규제 설정필요

※ GM 식품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

○ 국제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에대한대응

- EU를 시작으로국제적으로소비자제품에대해 유해물질사용제한규제 (RoHS : Restrictions of Hazardous Substances)가확산되는추세

※ 시행 : EU(06.1), 일본(06.6), 중국(07.3), 한국(08.7 예정)

- 국제적으로 통일된 RoHS 규정 마련 필요 (미 상무성에서 제안)
- RoHS를 시행하는 국가마다 그 제도가 상이하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(특히, 중국의 규제에 대해 우려 표명)
-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상이한 유해물질 규제 제도를 시행
- 소비자 안전 교육/커뮤니케이션
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소비자 교육/커뮤니케이션 방안은 사례: 발전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)
- 소비자·제조사·판매자 간 평정적 관계 구축 방안
 - 정부에서는 안전 규제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
 - 판매자는 위해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리스크 평가 실시
 - 소비자 단체는 위해 정보 및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 교육

III. 관찰 및 평가

□ 참석자 현황

- 총 307명 (정부: 29개국 30명, 민간: 15개국 277명)
- 정부 및 민간 전문가 (소비자, 사업자, 안전기관, 자문회사, 표준기관)에 참여하여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
- 다만, 소비자(3명) 및 표준화기관(4명)의 참여는 저조

정부	제조사	판매자	소비자	안전기관	자문회사	표준화기관	교육기관
30명	62명	58명	3명	7명	74명	4명	5명

- 동 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측 대추세
- Ⅱ 미국 CPSC는 동 회의를 제도 소개 및 사업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
- 사업자 위해 정보 보고 의무 제도 강화 및 임의 표준 적용 확대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
- 판매자는 보고 의무 제도 확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, 사업자들의 표준 확대 정책에 대해 리콜 남용 우려 표명
 - ※ 제도 시행 이전에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
 - ▶ 매트리스 안전 기준 개정 건에 대해서도 기준 개정을 금년 1월에 공표하고 7월부터 시행하면서, 동 회의에서 그 내용을 공지하고 앞으로도 2차례 사업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힘
- 또한, CPSC는 국제 양자 협력을 강화해 가는 추세
 - 양해각서 체결: EU, 캐나다, 한국('05., 소보원 일본('06)
 - ※ 한국은 소보원이 양해각서를 기 체결하여, 기표원의 양해각서 체결 추진 여부는 면밀한 검토 필요
 - 금년에도 대만, 콜롬비아 양해각서 체결 예정
 - 중국과는 완구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해 공동 작업만을 구성키로 합의
- Ⅲ 국제 조화 안전 규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, 임의 표준을 안전 기준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
- 국제 조화 안전 규정 제정 필요 분야: 리콜 제도, RoHS 등
- ASTM 등 임의 표준 제정에 정부 당국의 참여가 활성화되고, 동 표준을 안전 기준으로 곧바로 적용하는 사례 확대

- ICPHSO 회의에 지속적인 참여 및 향상 필요
 - 회의 내용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자 선정 및 참여 효과 제고
 - 제품안전분야 전문가 육성 위 한 교육 프로그램 으로도 활용
 - 안전전문기관, 소비자단체 등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검토
 - 우리나라 전문가를 ICPHSO 핵심 멤버로 육성, 기표원 위상 강화 및 발언권 확대

- 국제 제품안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 - 각국 제품안전 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TBT 분쟁 소지 사전 예방 및 제도 개선 강구
 - 국제 워크숍 등을 개최 하면서 국제 전문가를 초청 하여 국내 제도 홍보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외국 제도 소개 확대

IV. 성과

- World Crack Barrel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소개 (임현진 연구관, 약 100명 참석)
 - ※ 일본은 NITE 생명복지기술센터 OZAWA 부장 대행 발표
 - NITE :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& Evaluation (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
- 한국 소비자 제품안전 워크숍 연차 섭외 (07.5.18 개최 예정)
 - 미국 CPSC, 네덜란드 식품 소비자 제품 안전 품 3-4명
- 2007 ICPHSO 북경 회의 발표자 선정 협의 (07.5.21~22)
 - 개최 연설(원장님), 한국 의 안전관리 제도 발표(임

- 현진 연구관)
 - ※ ICPHSO 집행부에서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전문가 추가 추천 요청
- 기표원 및 NITE의 제품안전 분야 협력을 위한 기관장 회담 추진
- ICPHSO 집행부에서 2008 아시아 지역 회의 한국 개최 제안

V. 향후 계획

- 국제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제품안전 포럼 구성· 운영
 - 정부부처, 기업, 소비자, 학계 단체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
 - 우리원 제품안전 정책 검토 및 발전 방향 모색
- 국제 소비자 제품안전 워크숍 개최 (07.5.18)
 - ※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보고 예정
- 2007 ICPHSO 북경 회의 기조 연설 및 주제 발표 (07.5.21~22)
 - 주제: 한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
 - ※ 일본 NITE와 기관장 회담을 통한 양 기관 업무 협력 추진
- 2007 APEC-SCSC 주제 발표 (07.5.24-25, 광운대 김주찬 교수)
 - ※ 금번 APEC-SCSC에서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 논의 될 예정
- 2008 ICPHSO 아시아 지역 회의 개최 유치 검토
 - ※ ISO-COPOLCO 총회(매년 5월 넷째 주 개최)와 연계

| 기술 표준 2007. 4